



이보다 더
환상적인
팀워크는 없다!



이신재
사업총괄 이사



김훈철
사업지원 본부장

본부 사업지원본부 | 보건관리팀, 환경위생팀, 건강진단팀

보건관리팀·환경위생팀·건강진단팀으로 구성된 본부 사업지원 본부. 세 팀은 서로 다른 사업을 담당하지만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며 대한산업보건협회(이하 협회)의 주요사업을 이끌고 있었다.

본부에서 협의된 지침과 사업목표가 전국의 센터, 산업보건 전문가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려면 팀들 간의 협업이 우선 이뤄져야 하기에 최상의 소통과 최고의 협업을 해나가고 있다. 협회와 센터를 발전시키는 사업지원본부를 찾아가보았다.

글_편집실

[보건관리팀]

센터 지원업무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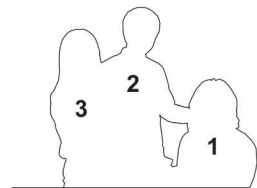


보건관리팀은 전국 16개 산업보건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돕는, 지원업무가 핵심이다. 실무 중심으로 운영되는 센터는 사업지침·목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운 만큼 보건관리팀이 지원기능을 강화해 센터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 개선하려고 한다.

“업무효율성은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보건관리팀은 센터의 현황을 파악한 뒤 센터가 적절한 목표를 세울 수 있게 사업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 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매뉴얼들을 재정비하는 일에도 힘씁니다. 매뉴얼이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올해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업무 간소화를 실천할 수 있는 ‘i-health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i-health 서비스’는 보건관리팀이 센터를 방문한 뒤 작성해야 하는 방문보고서를 모바일 앱으로 작성, 사업장에 웹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i-health 서비스’를 통해 업무절차를 줄이고 센터와 본부간의 교류도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보건관리팀의 업무는 다양하다. 근로자건강관리, 사업장보건관리, 근로자건강유지증진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며 전국 사업장에서 보건관리 업무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주, 책임자에게 법적사항 등을 지도·조언한다.

- 1 박정숙 팀장
- 2 이용필 대리
- 3 이정아 대리





[환경위생팀]

근로자들의
건강한 작업환경을
책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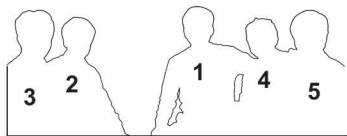
환경위생팀은 작업환경측정, 연구실안전진단, 근골격계 부담작업조사, 실내환경측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돕는다. 올해 환경위생팀은 기존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펼치는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 목표이다.

“작년 메탄올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시력이 손상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국에 있는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대부분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방문해 화학물질 유해성을 알리고 예방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팀은 이 같은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남겼다. 일례로 과거 건설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 불분명했을 때 건설사들을 직접 찾아가 유해인자, 위험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작업환경측정을 유도했다. 그 결과 많은 건설사들이 작업환경측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센터, 본부와 센터를 이어주는 가교역할도 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제도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이를 노동부에 건의한 뒤 센터에 전하고 있으며 센터를 찾아가 본부 전산실에서 개발한 전산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사용하도록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준다.

- 1 윤장한 팀장
- 2 양욱 부장
- 3 이용호 과장
- 4 임성국 대리
- 5 주창용 대리



[건강진단팀]

빠르고 편리한 시스템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건강진단팀은 진단계획 수립과 실행, 센터의 지원 업무 등을 맡고 있다. 하지만 센터에 굽직한 기준만 제시할 뿐 세부 실행방안은 센터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한다. 또 센터 직원들과 수검자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검진결과를 기록, 수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한다. 건강진단팀은 올해도 시스템 개선과 보완에 힘을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간호사·행정직원들이 수검자들의 검진결과와 인적사항을 일일이 컴퓨터에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제 업무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이 같은 단순작업을 줄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바로 검진결과를 입력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입력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협회 서버로 연동, 기록됩니다. 빠르면 내년 몇몇 센터에 시범사업을 하고 타당성이 증명되면 전 센터

로 상용화 할 계획입니다.”

건강진단팀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헬스키퍼(Health Keeper)’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수검자는 헬스키퍼를 통해 5년 전의 검진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고 바이오리듬·혈압·혈당 등을 직접 입력, 관리할 수 있다.

나아가 건강진단팀에서는 올해 말까지 종이에 작성돼 우편으로 발송하는 기존의 검진결과표를 문자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여러모로 창의력과 꼼꼼함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업무이지만, 다행히 팀원들의 경력이 많아 추진력 있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1 한찬영 팀장
- 2 이지선 차장
- 3 윤영주 차장
- 4 박영희 차장

촬영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소통했던 사업지원본부, 한 층에서 수시로 소통하고 있음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편안한 미소에서 알 수 있었다. 팀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탄탄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사업지원본부를 통해 협회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

